



Hana Market Weekly

#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4. 4. 8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주간 달러/원 동향(4/1~4/5) 및 전망



##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국 금융시장은 성금요일로 휴장한 가운데 예상에 부합한 미국 2월 PCE 지표 둔화에 환율은 하락 출발 후 역외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전환. 이어 미국 ISM 제조업 PMI 호조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글로벌 달러 강세에 1,350원대 진입
- 중반, 대만 강진 소식으로 위험회피 심리 나타나며 상승 압력 받았으나 고점 인식에 따른 중공업 네고물량 유입 등 수급상 매도 우위에 하락
- 후반, 미국 서비스업 성장세 둔화와 기존 입장 고수한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달러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며 추가 하락. 이어 주 후반, 미니아폴리스 연은 총재의 연내 금리인하 불필요할 수 있다는 매파적 발언과 중동 지정학적 불안 고조에 따른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에 상승 전환 후 1350원대 초반 마감

## 달러/원 전망

- 전주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며 여전히 탄탄함을 증명한 결과에 따른 6월 금리인하 전망 약화 등이 달러 강세 흐름을 지속하게 할 것으로 예상
- 여기에 연이은 연준 인사들의 물가 경계에 대응한 매파적 발언이 이어질 가능성 등이 환율 상승 압박 요인으로 판단
- 다만, 현 시점 긍정적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 등으로 뉴욕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위험 선호 영향과 고점 인식 수출 관련 달러 매도 물량 출회 가능성 등이 상단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44.0	1,356.0	1,342.5	1,352.8	+8.8

## 예상거래범위

1,340원 ~ 1,357원



# 엔·유로화 동향 (4/1~4/5)



## 유로화 동향

- 주초, 미국 제조업 경기의 확장세 전환에 유럽과의 성장세 차별화 부각된 점이 유로화 약세 견인하며 출발. 이어 독일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둔화되었음에도 유로존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상향 조정된 측면 반영하며 소폭 강세
- 중반, 미국 ISM 서비스업 지표 하락으로 달러 강세의 되돌림 나타난 영향으로 유로화는 상대적 강세 시현
- 후반, 유로존 종합 PMI가 기준선 상회하며 경기 회복 가능성 시사했으나 ECB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내 금리인하 시기 구체화 등 언급에 강세 제한. 이어 주 후반, 미국 비농업 고용 호조에도 연준 금리인하 시기 차별화 우려가 이부 선반영된 측면과 강한 경제에 기반한 위험 선호 심리에 강보합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793	1.0877	1.0725	1.0837	+0.0044

## 엔화 동향

- 주초, 예상치 상회한 미국 제조업 PMI에 따른 연준 금리인하 기대 제한과 미 국채수익률 상승에 엔화 약세 출발. 이어, 일본 외환당국 관계자들의 구두개입성 발언이 지속되며 약세의 일부 되돌림 시현
- 중반, 일본 당국 개입 경계감 속 151엔대에서 등락 흐름 이어지는 가운데 엔화 약세 기조는 지속
- 후반,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 고조 등에 따른 중동 확전 우려 속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되며 가치 반등. 이어 주 후반, 우에다 BOJ 총재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에도 예상보다 큰 폭 증가한 미국 고용지표가 견인한 미국 채금리 상승과 미-일금리차 확대에 약세 전환 후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1.4	151.9	150.8	151.6	+0.2



#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4/1~4/5)



##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 2월 근원 PCE에 대한 파월 의장의 예상에 부합한 결과란 언급 이후 중, 단기 미 국채금리 하락 등을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도 하락 출발. 하지만 이어진 미 제조업 PMI 지표 확장세와 국내 3월 소비자물가의 3%대 연속 흐름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미 노동부 발표 구인 건수 관련 고용지표의 견조세 이어진 가운데 유가 상승 흐름 등으로 국내외 금리 상승 추세 이어진 형국. 하지만 대만 관련 지진 사태에 따라 시장의 일부 위험회피 심리 강화가 나타나며 일시 금리 상승세 양전되는 국면 시현
- 후반 들어, 미 3월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 강화 속 보험금 혼조 흐름 후, 주 후반, 유가 상승과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에도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반영 등으로 하락 전환하며 마감

##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코스피는 국내 3월 수출입 동향 발표에 주목하며 펀더멘탈 개선이 기대되는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상승이 견인. 여기에 중국 PMI가 예상치를 상회한 측면도 상승 동력으로 작용. 이어 미국 기준금리 인하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전일미 이온 반도체 업황 강세에 상승세 지속
- 중반 들어, 미 제조업 PMI 호조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잇따르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가운데 대만 강진 여파 등에 따른 아시아 증시 하락 등을 반영하며 코스피도 하락 전환
- 후반 들어, 대만 지진 여파의 국내 연관산업 반사이익 가능성 및 삼성전자 실적 기대 등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 등으로 재차 상승 후, 주 후반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매파적 인사들의 신중론 소식 속에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 여파 등에 따른 뉴욕 증시 약세 영향 반영 등으로 하락 전환하며 마감